

전남지역 대학생 더 건강한 '천원 아침밥' 먹는다

전남도, 목포대 등 5개 대학과 '대학생 건강·쌀 소비 촉진' 협약 식비 1000원씩 추가 지원...전남 쌀로 만든 건강 식단 제공

전남도가 오는 5월 추경에 대학생들의 천원 아침밥 지원 예산을 편성해 전남의 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 쌀 소비를 촉진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더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목포대·순천대·동신대·전남과학대·정암대 등 5개 대학과 대학생 건강 증진 및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엔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은 순천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이은철 전남과학대 총장, 김성홍 정암대 총장직무 대행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식물관 변화 등으로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정부 지원 외에 전남도에서 1000원을 추가로 지원

해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또 참여 대학은 학생이 알뜰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하도록 전남 청정 들녘에서 정성스레 키운 쌀을 사용해 양질의 '천원의 아침밥' 메뉴를 제공하게 된다.

김 지사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생활고를 겪는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두 끼, 한 끼를 먹으며 생활하고 있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전남의 미래를 이끌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सु판화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시켜 건강 증진과 함께 가치 있는

쌀 소비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오는 5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전남 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식단을 대학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건강을 챙기고 쌀 소비 촉진과 함께 참여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 희망 대학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학교 소개서, 운영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에 전자공문과 전자우편(rice1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군 도시재생센터 간담회 사업 현황 공유·협력 방안 모색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0일 오후 나주시 북학문화공간 나주 정미소에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현황 및 역할 제고'를 주제로 2023년 제1회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남도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사무국장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전라남도 도시재생 사업 현황 공유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 주관하고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광항구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사업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이후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행구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전남도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향후 전라남도 도시재생 자문단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예쁜정원 콘테스트 전남도 5월 31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생활 속 정원을 확산하고 민간에서 만든 우수 정원을 민간정원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3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정원을 만들고 가꾼 개인과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개인 정원과 카페·음식점 등 근린정원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신청 정원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4개소 등 총 7개소의 예쁜정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는 정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원 디자인 및 심미성 ▲타 정원과 차별성 ▲시공 품질 및 완성도 ▲역사성 및 관리 상태 ▲지역민과의 공유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쁜정원 콘테스트에 선정된 정원에는 전남도지사 상장과 예쁜정원 현판을 수여해 그동안 정원을 만들고 가꾼 정원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과 그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상 정원에 상금이 함께 전달된다. 총상금은 500만원 규모로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각 75만원 ▲우수상 각 50만원이다.

그동안 예쁜정원 콘테스트에 당선된 정원 6개소가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최근 많은 국민이 정원을 찾고 있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개인이 만들고 가꾼 예쁜정원을 지속해서 찾아 국민과 가치를 공유하고 우수 정원 등록을 유도하는 등 정원관광 브랜드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전남도, 분산에너지법 제정 대응방안 협의

에너지 정책 대응 '브라운백 미팅' 영농형 태양광범 영향 등도 논의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난 24일 에너지 분야의 다양하고 급변하는 정책 대응을 위해 전남도와 '브라운백 미팅' (간단한 점심을 함께 한 회의)을 공동개최했다. <사진>

이번 브라운백 미팅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지법) 제정과 관련 전남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분특법 관련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전력계통 영향 평가 제도 준비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전남도의 대응을 모색했다. 또 일본 영농형태양광 전문가인 콘도케이 ISEP(에너지정책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영농형 태양광이 인구 소멸 및 농지 감소 방지, 농촌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법 시행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분특법 제정 후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녹색에너지 연구원은 전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장은 "영농형태양광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마을조화 형태로 추진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

여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 모집

5월 8일까지...팀당 8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청년이 지역사회 활동 주제로 성장하도록 네트워크 협력을 지원하는 '2023년 전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도내 청년이 70% 이상 포함된 5명 이상 청년공동체팀을 결성해 청년공동체 지역 시·군 담당부서에 오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150개 팀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활동 및 행사 개최, 콘텐츠 제작,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과업 수행비 600만원과 네트워크 활동비 200만원 등 팀당 800만원의 사업비를 도청센터와 시·군 청년센터가 연계해 지원한다.

전남지역 청년이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청년의 공동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전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33팀에 총 7억98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13일엔 전남도 주관으로 시·군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공동체팀으로 ▲최우수상에 무안군 농스톱 ▲우수상에 완도군 노화오감자, 해남군 1302 ▲장려상에 영암군 플랜Green, 광양시 화음국악연구회, 장흥군 문화공간 예음, 목포시 라라양상블, 보성군 별고청년어울림 등 8팀을 선정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많은 청년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공헌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더 성장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5월 12일까지 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 접수 복구비·농약대 등 지원

전남도가 지난 8·9일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정밀 조사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저온 피해가 있는 농가는 5월 12일까지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과 피해농가, 마을 이장장 등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농작물 저온 피해 조사 요령에 따른 현장 정밀조사 결과 저온 피해 발생이 확인된 시군에서는 5월 19일까지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농약대 등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수류 1ha 기준 농약대 249만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신한카드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과비를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